

당뇨인을 생각하는 기업

Novo Nordisk changing diabetes World Tour



당뇨병환자의 삶의 질을 생각하는 노보 노디스크제약(주)

현재 당뇨 인구는 점점 늘어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명중 1명, 60대 이상 인구의 4명중 1명으로, 당뇨병 치료와 진단에 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게다가 당뇨는 한 번 걸리면 죽을 때까지 가져 가야 하는 불치병으로, 환자 스스로의 식사조절과 운동, 적절한 약물 투여를 해야 하는 병이다.

당뇨관리법 중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은 기본이고, 여기에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물이 추가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경구혈당강하제와 인슐린이 포함된다. 약물요법도 같이 시행하는 당뇨병환자는 경구혈당강하제를 식전, 식후 등에 복용하기도 하고, 인슐린을 직접 몸에 주사하기도 한다. 당뇨병환자가 늘어감에 따라 혈당관리를 위한 경구약제와 인슐린이 많이 개발되어 혈당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잡아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당뇨'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당뇨병환자의 보다 나은 당뇨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는 '노보 노디스크제약(주)(Novo Nordisk, 대표이사 : 피터 펠딩거)'을 방문해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사업을 펼쳐가는지에 대해 들어보았다.

노보 노디스크는 당뇨관리의 선두주자로 1985년 한국의 녹십자와 다림양행을 통해 한국에서 인슐린을 간접 판매하기 시작한 뒤로 한국에 입성해 당뇨병환자가 인슐린과 당뇨약을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피터 펠딩거

록 성장해왔다. 노보 노디스크제약(주)의 피터 펠딩거 사장은 “노보 노디스크의 주된 목표는 당뇨병환자가 당뇨치료를 위해 최상의 인슐린을 접할 수 있도록 좀 더 발전된 인슐린을 공급하는 것”이고 “당뇨병환자가 의사와 함께 스스로 당뇨관리 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뇨병 변화시키기

노보 노디스크는 당뇨관리의 현재와 미래를 향상시키기 위해 ‘당뇨병 변화시키기(Changing Diabetes)’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당뇨병 변화시키기(Changing Diabetes)는 2005년 말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당뇨 예방·관리 사업으로써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피터 펠딩거 사장은 “세계적으로 2,460만 당뇨병환자가 약 2025년에는 3,8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앞으로 증가하는 당뇨병환자들의 절반이 자기 자신의 상태를 몰라 결과적으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의 추진 이유를 밝혔다. 또 “당뇨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당뇨병환자를 위해 지금 행동하고 치료·관리 홍보에 힘쓰지 않으면 당뇨로 인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뇨병의 미래를 변화시키기

노보 노디스크는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제 2형 당뇨병의 위험요소와 요인들에 대해 홍보함으로써 당뇨병을 예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보 노디스크는 ‘젊은 목소리(Young Voices)’라는 프로그램을 제안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제 1형 당뇨병환자나 20세 미만의 당뇨병환자가 앞으로 당뇨치료를 위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고,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연구·분석하여 하루 빨리 당뇨관리를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의 토대가 되도록 이루어져 있다.



당뇨병을 치료하는 방법 바꾸기

얼마 전 인슐린 치료를 빨리 시작해 혈당을 잡아 놓는 치료 가이드라인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인슐린 치료를 통해 이미 높아져버린 혈당을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 시키는 것이 당뇨관리를 해 나가는 과정과 합병증 예방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펠딩거 사장은 “인슐린 치료를 일찍 시작하면 정상인과 가깝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며 “운동·식이·경구혈당강하제로 시작하더라도, 혈당이 잡히지 않으면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슐린 치료 하면 사람들은 아직까지 인슐린이 당뇨의 약물치료 중 마지막 단계라고 알고 있다. 또 인슐

당노인을 생각하는 기업

린을 한 번 맞으면 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당뇨병에 관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터 펠딩거 사장은 “노보 노디스크는 인슐린을 치료약제로 소개한 최초의 회사이며 당뇨병환자를 위한 최적의 인슐린을 개발·생산하고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혈당이 정상으로 유지되는 최상의 인슐린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한다”고 말했다.

당뇨병을 위한 단결

노보 노디스크는 ‘당뇨병을 위한 단결’이라는 이름 아래 미국당뇨병협회(ADA)와 함께 UN 결의안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당뇨병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세계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펠딩거 사장은 “현재 당노를 홍보하기 위해 2006년 9월 Changing Diabetes Bus 라는 이름의 ‘당노버스’가 덴마크를 떠나, 올해 11월 뉴욕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 버스로 전세계사람들에게 당뇨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버스는 2008년 상반기에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당뇨병과 노보 노디스크의 일하는 방법 바꾸기

노보 노디스크는 당뇨에 관해 보다 나은 당뇨관리 환경과 당뇨홍보, 인식변화에 앞장서지만 한편으로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하나의 기업으로써의 의무와 단순한 이윤창출만이 목표가 아니라 실제 당뇨병환자를 위해 어떻게 하면 치료관리에 편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기업이다. 펠딩거 사장은 “노보 노디스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의사·간호사·운동처방사와 같은 당뇨전문의료진들과 함께 일하며 당뇨병환자가 당뇨관리에 가장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항상 연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보 노디스크는 연간 총 매출액의 16%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금액의 70%를 당뇨연구에 투자하고 있다.

당뇨병 치료를 위한 기본 토대 건설

노보 노디스크는 세계당뇨병연맹(IDF)와 함께 각 나라의 당뇨치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자료를 수집해 파악할 예정이다. 각 나라의 병원에서 환자의 혈당변화와 당뇨관리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 수집해 세계 각국의 데이터가 모아지면, 그 나라의 당뇨관리의 환경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지속적으로 측정해 당뇨치료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려 함이다. 펠딩거 사장은 “각국의 당뇨관리 실태의 자료를 통해 당뇨치료의 최적화를 이루고 비만이나 생활습관 개선 등 당뇨예방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뇨전문병원과 연계되어 있는 연구시설 여러 기초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노보 노디스크의 연구시설은 덴마크 하케돈에 위치해 있다. 이 연구소에서는 당뇨와 인슐린에 관한 기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실제 임상 실험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하고 있는 스테노연구소는 실제 현지 당뇨전문병원하고 연계되어 임상치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당뇨전문병원과 직접 연계해 연구시설을 가진 제약회사는 노보 노디스크가 유일하다고 한다. 이 연구소에서는 환자에 대한 임상실험이 직접 전개되어 당뇨관리·교육의 효과·치료 가이드라인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펠딩거 사장은 “노보 노디스크의 모든 프로그램은 당뇨병 치료와 당뇨관리 방법에 앞장서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진에 대한 당뇨교육과 국가적 치료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함”이고 “이를 위해 당뇨 발병 위험도가 급증하는 국가에 유럽형 당뇨치료 가이드라인의 사례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슐린의 새로운 타입 개발 중

현재 노보 노디스크에서 연구하고 있는 인슐린 GLP1 타입은 기존의 인슐린의 부작용(저혈당·체중증가)을 최소화하고 훨씬 효과적인 혈당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물론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노보 노디스크의 인슐린도 다른 제품에 비해 저혈당과 체중증가 발생률이 가장 낮지만 앞서 말한대로 당뇨병환자의 당뇨치료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주사기나 펜으로 직접 피부에 주사해야 했던 인슐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흡입형 인슐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아직 초기단계라 연구결과가 나오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슐린 치료를 하는 당뇨병환자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장시간형 인슐린인 레버미어의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레버미어 인슐린 사용자의 혈당관리 실태와 안전성, 당화혈색소의 상태를 알기 위해 세계 35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당뇨병은 환자·의료진의 꾸준한 교육과 환자 자신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인이 혈당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밝혀지지 않은 당뇨병환자도 많은 실정이다. 물론 당뇨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말이다. 노보 노디스크는 인슐린과 당뇨약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를 떠나서 현재 당뇨병환자의 당뇨관리의 안전성과 편리성, 삶의 질을 생각하고 미래 당뇨병환자를 위해 당뇨를 교육·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예방하려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 글/홍지영 기자